



# 캄보디아 육계산업

- 한국과 캄보디아의 산업발전
- 캄보디아 육계산업
- 캄보디아 육계산업 발전 방안

**대** 자급생산 위주인 캄보디아의 축산업은 점차 양돈과 양계중심으로 대량사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캄보디아 농민들은 집에서 몇 마리를 키우는 상태로 사료의 구매는 생각지도 못하고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 부산물 정도로 사육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비록 증가세가 둔화되어 있지만 축산업은 현재 캄보디아 농민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효과적인 사육방법과 기술이 전파되면서 점차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축산업 중 돼지와 가금류가 두드러지게 성장하여 가고 있으며, 캄보디아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내 소비와 몇몇 나라로 수출도 추진되고 있다.

2012년도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및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개발센터(KOPIA)공동으로 조사한 축산현황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가금류 마리수 변화는 2,019만수에서 2,747만수로 36%로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다른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7년의 가금류 마리수가 1,500만수가 2013년 2,747만수로 마리수가 54.5%로 가파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캄보디아 축산현황**

(단위 : 수)

| 축 종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소   | 3,484,601  | 3,406,972  | 3,376,805  | 3,430,895  |
| 돼 지 | 2,057,431  | 2,099,332  | 2,208,611  | 2,436,699  |
| 가금류 | 20,192,811 | 22,036,755 | 23,098,809 | 27,473,443 |

자료인용 : KOPIA캄보디아센터



**박 규 식**

성남시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사



표 2. 2013년 9월 20일 축산물 시세

(단위 : 수)

| 구분      | 2011   | 2012   | 2013   | 평균 가격  |
|---------|--------|--------|--------|--------|
| 쇠고기     | 23,200 | 27,200 | 33,000 | 33,600 |
| 돼지고기    | 16,200 | 18,000 | 17,000 | 20,400 |
| 베이컨     | 13,400 | 15,000 | 15,000 | 15,600 |
| 닭고기     | 21,000 | 21,000 | 18,000 | 20,000 |
| 계란(10개) | 3,920  | 4,400  | 4,000  | 5,000  |
| 우유(캔)   | 2,520  | 2,620  | 2,800  | 2,800  |

평균가격 : centralmarket, 닭고, 오르세이, 깐달, 초바엄프으

또한,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축산물 가격추세도 매년 가격이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축산업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지난해에서 캄보디아 경제흐름을 살펴 보았듯이 최근 세계 7대 불가사의중 하나인 앙코르왓트를 관광하기 위해 모여드는 외국관광객들과 가난한 농촌에서 보다 더 잘 살기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시로 모여드는 프놈펜 및 씨엠릿 등지에서 치킨을 재료로 하는 KFC와 같은 많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식당들을 시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캄보디아에서도 외식

산업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서 캄보디아 축산업이 꾸준히 발전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 현재 캄보디아 가정에서 닭이 어떻게 사육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캄보디아는 스킨이라는 열대성 폭우로 농촌에서 닭 사육장은 지상표면에서 높게 닭 사육장(계사)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농가에서 방사를 하여 사육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주 사료원은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부산물인 밀기울, 쌀겨, 배아, 쌀물 및 녹색채소와 같은 농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료를 혼합하여 급여하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던 방식인 재래식 사육기술을 통하여 사육한다. 일반적으로 병아리를 키우면 출하체중까지 3개월 이상 사육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캄보디아 육계사육기술은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사료배합(feed formulation)과 사료급여방법의 개선, 출하일령 단축기술 등 많은 부분에서 육계사육기술의 방법개선이 필요하다. 실례로 KOPIA(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



▲ 산란계사  
▶ 캄보디아 계란소비의 40%를 공급하는 SCP 김정인 사장(우)과 필자(좌)



▲ 방사현장



▲ 재래계(육계사)

술개발센터)에서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캄보디아 사육환경에 맞는 새로운 육계사육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육계사육의 새로운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캄보디아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었다.

캄보디아 깐달주, 감땡뽀마을 까께오주 쓰크람마을과 트래팡프링마을에서 새마을운동사업인 육계사육기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마을별로 병아리를 1,500수정도 입식하여 마을에서 15농가정도 나누어 캄보디아에 육계사육 시설과 사육기술 및 마이크로파이낸싱(micro financing) 기법을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즉 개도국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추진하는 육계 사육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병아리를 입식하여 1.3~1.5kg 육계출하 체중까지 90일정도 소요되는데 사육기간동안 경영비는 병아리 0.6불, 사료비 1.6불, 기타비용 0.3불정도로 약 2.5불정도 경영비가 들어간다. 그리고 출하가격은 2.5불/KG으로 평균 3.5불에 출하하여 약 1불 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린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병아리에서 출하시까지 45일정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생산비 절감요인

기술이 많이 투입 되어야 한다. 캄보디아 온도가 우리보다 높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온도를 저감시키는 기술과 비교적 신선한 아침, 저녁으로 사료를 급여 한다든지, 또한 급수급여를 효율적으로 하여 체온과 계사내 온도를 다운시켜 사료 과식으로 인한 사료요구율 수치를 내려주는 등 기술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캄보디아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육계사육기술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다. 캄보디아도 태국이나 베트남 등 이웃 나라와 같이 육계 등 축산업분야에서 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양돈이나 육계분야는 코드(CODO)회사 등 태국계열 회사들이 캄보디아에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사료회사를 경영하셨던 김정인 사장이 SCP회사를 통해 양계업에 진출하여 캄보디아 계란 소비량기준 40%를 공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캄보디아 육계산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가 육계산업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료배합과 사육기술, 식육 위생 처리기술등 선진국 기술을 더욱 수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다음호에 계속) **양계**